

#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죽음불안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김진숙\*, 송명섭\*\*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Jin-Sook Kim(kjs324@hanmail.net)\*, Myeong-seop Song(bigsms@naver.co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은 불안에 이르는 경로와 영성이 죽음불안에 이르는 경로,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이르는 경로 모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아졌고, 영성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인식된 짐스러움이 영성을 통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과 간접 경로만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식된 짐스러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죽음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성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노인 | 인식된 짐스러움 | 영성 | 죽음불안 | 완전매개모형 | 불완전매개모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ediated effect of spiritu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death anxie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learned that perceived burdensomeness of aged people has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a path of perceived burdensomeness to death anxiety, a path of spirituality to death anxiety and a path of perceived burdensomeness to spirituality. In short, higher perceived burdensomeness results in higher death anxiety, and higher spirituality lowers the death anxiety. This refers that perceived burdensomeness is predictor of death anxiety. In addition, it also indicates that mediated effect of spirituality has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both full/partial mediator models - partial mediator model supposes both direct and indirect paths that differ from the way of perceived burdensomeness influences on death anxiety, while full mediator model supposes only indirect path.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roposal to promote the quality of living of the elderly by reducing perceived burdensomeness that stimulates death anxiety and giving opportunity for experiencing spirituality to cope with death anxiety.

■ keyword : | the Elderly | Perceived Burdensomeness | Death Anxiety | Full Mediator Model | Partial Mediator Model |

## I. 서론

죽음은 인간의 통제 너머에 있고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죽음불안(death anxiety)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죽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1]. 죽음불안(death anxiety)은 모든 인간 앞에 놓인 통제할 수 없는 실재라고 볼 수 있다[2][3].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현실에서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불안을 승화시켜 삶의 의미를 찾고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4]. 특히 노년기는 건강악화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과 역할상실로 인한 무력감, 지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좌절감과 두려움이 높아지는 시기이다[5]. 노년기는 자신의 존재성을 상실해 간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고 신체적 건강이 쇠퇴하면서 삶의 의미와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죽음불안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죽음불안이 높아지면 개인 존재의 상실감과 사회적 관계의 상실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노년기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여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7],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죽음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노인들의 죽음 불안을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평안하게 노년기를 맞고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죽음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거나[9], 건강상태[10], 영적안녕감[5][11] 영성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5][12]. 이중에서도 기존연구에서는 영성이 죽음불안과 연관성이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과 안녕의 핵심요소로서[13],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14]. 영성(spirituality)은 온전

해 지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욕구로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궁극적 존재와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15]. 또한, 영성은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과 초월성 등을 드러내는 요소라고 규정할 수 있다[13]. 이외에도 영성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Coleman & Holzemer, 1999) 삶의 만족도 및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16][17]. 이와 같이 영성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강과 안녕의 핵심요소로서[13] 인지적 조절능력을 통해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문제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특히 역경에 직면한 개인에게 심리·신체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15]. 노인의 영성을 연구한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노인일수록 죽음을 삶의 단절이 아니라 또다른 삶의 연장으로 받아들이는 내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19]. 종교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죽음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이와 같이 기존연구를 검토해 볼 때 영성은 노인들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성이 죽음불안에 선행하여 불안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노인의 영성과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아통합감[21]이나 생활만족도[22]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데 그쳤고 노인의 개인내적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는 편이다. 많은 노인들은 은퇴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심리적 고통을 겪으며 여생에 대한 불안과 타인에게 짐이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을 본 연구에서는 영성과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삼고자 한다.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정서로 인해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태가 가족을 비롯한 타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말한다[23].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지

속될 때 자살의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5]. 인식된 짐스러움은 주로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는데[23][25], 인식된 짐스러움이 높을수록 자살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4][26]. 자신이 타인의 복지와 안녕에 기여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의 가치감을 낮게 자각하는 심리상태는 죽음불안과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영성과 인식된 짐스러움, 죽음 불안 이 세 변인간의 관련성을 다룬 기존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이 높아지면 인식된 짐스러움을 낮출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죽음불안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영성을 매개변인, 인식된 짐스러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킴으로써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들이 죽음 불안을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역량을 갖게 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실천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은 어떠한가? 둘째,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모형설정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영성을 매개로 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에 근거한 완전매개모형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영성을 매개로 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가정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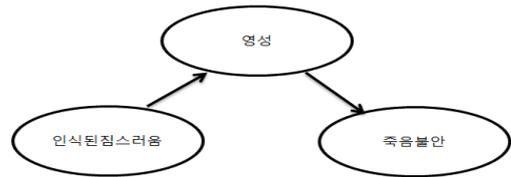


그림 1. 인식된 짐스러움 및 영성의 완전매개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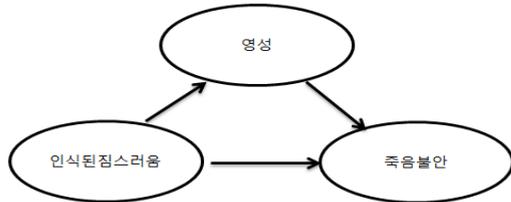


그림 2. 인식된 짐스러움 및 영성의 부분매개모형

##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29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무응답치가 많거나 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26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5개월이었으며 연구의 목적과 조사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각 기관의 담당자를 조사자로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직접 읽고 응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입하도록 했지만 시력이나 이해력 등의 문제로 직접 응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조사자가 설문지를 읽어주고 설문 응답을 돕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윤리문제를 고려하여 설문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설문 의도를 이해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 3.1 죽음 불안

본 연구에서는 죽음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Templer (1970)[27]의 죽음불안척도(Death Anxiety scale : DAS)를 고효진, 최지옥, 이효표(2006)[2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식 3점(1-3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음으로 평가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 및 전반적인 짐스러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669$  이었다.

### 3.2 인식된 짐스러움

본 연구에서 인식된 짐스러움은 추경진(2012)[23]의 논문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Van Orden, Witte와 Gordon(2008)[26]이 개발한 대인관계 욕구질문지(INQ: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중 ‘인식된 짐스러움’을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를 조민호(2010)[29]가 번안하여 만든 개정판(INQ-R: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Revised) 중에서 ‘인식된 짐스러움’ 하위척도를 추경진(2012)이 발췌하여 자신의 논문에서 활용한 것이다[23]. 이 척도는 3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있고 짐스러움에 대한 반응이 높음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816$  이었다.

### 3.3 영성

본 연구에서는 Palouzian과 Ellison(1982)[30]이 개발한 영성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영성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성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4$ 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20.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인의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하였고,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여러 적합도 지수 가운데 절대적합지수인  $\chi^2$ , SRMR, RMSEA와 증분적합지수인 NFI, TLI, CFI 등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chi^2$ 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였다[29-31]. 아울러, 선정된 모형의 구조경로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최종모형에 대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효과를 분해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195명(72.5%)을 차지하고 있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을 살펴보면, 70~79세가 148명(55%)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졸이 106명(39.4%), 중졸이 56명(20.9%)순이었고 무학도 52명(19.3%)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135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별한 경우는 121명(40%)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50만원 미만인 62명(23.0%)으로 나타났으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33명(49.4%), 100만원 이상 150만원미만은 52명(19.3%)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150만원 미만의 월소득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74	27.5
	여성	195	72.5
나이	65~69	62	23.1
	70~79	148	55.0
	80~89	55	20.4
	90~	4	1.5
	무학	52	19.3
학력	서당/한학	3	1.1
	초등학교졸	106	39.4
	중학교졸	56	20.9
	고등학교졸이상	52	19.3
	혼인상태	배우자 동거	135
사별		121	40.0
별거		3	1.1
이혼		7	2.6
미혼		1	0.4
기타동거		2	0.7
월소득		50만원미만	62
	50만원~100만원	133	49.4
	100만원~150만원	52	19.3
	150만원이상	22	8.2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연구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인식된 짐스러움의 평균은 2.805(SD: 0.337)이었으며, 영성은 2.630(SD: 0.338)이었으며, 죽음불안은 평균이 2.856(SD: 0.322)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벗어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변수의 자료특성과 분포특성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표준오차)	첨도(표준오차)
인식된 짐스러움	2,805	0,337	1,313 0,149	3,052 0,296
영성	2,630	0,338	-0,852 0,149	0,215 0,296
죽음불안	2,856	0,322	-0,197 0,149	-0,546 0,296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결과, 영성, 죽음불안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성, 죽음불안과 인식된 짐스러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영성은 영성의 하위변인과 죽음불안의 하위변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반면 인식된 짐스러움의 하위변인들과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은 .90이하이므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구분	영성	죽음불안	짐스러움
영성	1**		
죽음불안	.243**	1	
짐스러움	.216**	.333**	1

주)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유의

4. 측정모형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검증을 위하여 Amos 22.0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3][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자료의 정규분포성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표 2], 첨도는 모두 2이하로 7보다 작았고, 왜도는 2이하로 3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모수를 추정

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 28.977$ ,  $df = 24$ ,  $\chi^2/df = 1.207$ , RMSEA = 0.028, SRMR = 0.0354, NFI = 0.962, TLI = 0.99, CFI = 0.993로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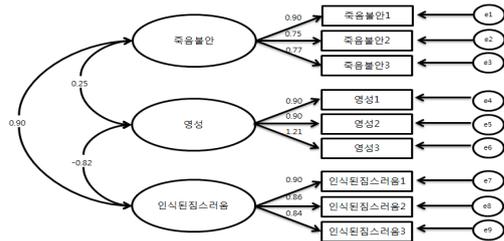


그림 3. 측정모형 검증

표 4. 구성개념의 타당성 검증

구성 개념	오인	구성개념 타당성				AVE
		표준오인 부하량	t값	p	개념 신뢰도	
죽음불안	죽음불안1	0,369	8,925	***	0,84	0,63
	죽음불안2	0,294	8,29	***		
	죽음불안3	0,254	6,176	***		
인식된 짐스러움	인식된 짐스러움1	0,196	8,439	***	0,93	0,81
	인식된 짐스러움2	0,095	5,747	***		
	인식된 짐스러움3	0,141	7,693	***		
영성	영성1	0,125	8,505	***	0,90	0,77
	영성2	0,195	10,246	***		
	영성3	0,09	3,957	***		

주) \*\*\* p < .001.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의 부하량이 0.50이상이고, 개념 신뢰도 값이 0.80(0.84~0.93) 이상이며, AVE값 역시 0.60(0.63~0.81)이상으로 산출되어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타당성은 영성과 죽음불안 및 인식된 짐스러움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의 값 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모형의 적합도 검증

인식된 짐스러움이 영성을 매개로 하여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를 모두 가정한 부분

매개모형중 실제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림 1]의 모형1과 [그림 2]의 모형2의 적합도를 각각 살펴본 결과, 모형1에서 절대적합지수인  $\chi^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 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chi^2/df$ 는 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SEA(0.08이하)와 SRMR(0.05 이하)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NFI, TLI, CFI(0.9이상)도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모형2에서도  $\chi^2$ 은  $p < .001$ 로, 수용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자유도를 고려한  $\chi^2/df$ 는 모형이 표본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FI, TLI, CFI와, RMSEA, SRMR도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6.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랩 방식[34]으로 영성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인식된 짐스러움 → 영성 → 죽음불안의 경로에서 영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p값
인식된 짐스러움 ⇒ 영성	.246		.006
영성 ⇒ 죽음불안	.816		.011
인식된 짐스러움 ⇒ 영성 ⇒ 죽음불안		.256	.001

주) \*  $p < .05$ ,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영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세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식된 짐스러움과 영성, 죽음불안의 평균점수는 각각 2.805, 2.630, 2.856으로 나타났다. 김경진과 용진선(2013)이 암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죽음불안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간호사들의 죽음불안 평균점수가 3.22점으로 나타나[35] 본 연구대상자보다 약

간 높았다. 김세원(2009)의 연구에서 노인 죽음불안 평균점수는 2.35점으로 나타나[35]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점수보다 수치상으로는 약간 낮지만 죽음 불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인식된 짐스러움, 영성, 죽음불안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결과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이르는 경로와 영성이 죽음불안에 이르는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아졌고 영성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 상태로 이어져 죽음불안을 촉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은 절망감과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23][36]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에게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인식된 짐스러움이 감소되었다는 기존 연구결과[37]에 근거해 볼 때, 노인들의 학력, 건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심리적 역량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석결과 영성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들[38][35]와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영성이 죽음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들중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특성파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전체 연구대상자중 161명(59.9%)이 종교를 갖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종교가 있는 노인들은 죽음 이후 내세관을 갖고 있어 죽음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한 기존연구[1][38]와 관련시켜볼 때 종교가 영성을 강화시키고 죽음불안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인식된 짐스러움은 죽음불안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성은 반대로 죽음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경로와 인식된 짐스러움이 영성을 통해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가정한 부분매개모형과 간접경로만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에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나 영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연구에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죽음불안을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영성으로 나타났다[39]. 이를 종합해 볼 때, 노인들에게 죽음불안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영성을 강화시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년기를 감안하여 쉽게 영성의 개념을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인문학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죽음불안과 인식된 짐스러움 간에 영성이 매개효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죽음불안을 낮추고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인식된 짐스러움이 죽음불안을 높이는 영향력보다 영성을 매개로 한 죽음불안과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이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전국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비교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들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재적 변수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길, “노인의 사회활동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제5권, 제1호, pp.13-25, 2013.
- [2] A. M. Abdel-Khalek, “Death anxiety in clinical and non-clinical groups,” *Death Studies*, Vol.29, pp.251-259, 2005.
- [3] R. H. Lehto and K. F. Steinm, “Death Anxiety : An Analysis of an Evolving Coconcept. Research and Theo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23, No.1, pp.23-41, 2009.
- [4] 박세연 역, *죽음이란 무엇인가*, Kagan, Shelly, 2012, *Death*(Open Yale Courses), 서울: 엘도라도.
- [5] 한경옥, 전요섭, “노인의 영적 안녕감 형성이 죽음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상담*, 제19권, pp.296-323, 2012.
- [6] 이현지, 조계화,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26권, 제4호, pp.717-731, 2006.
- [7] 김혜숙, “영적 안녕감과 죽음 준비도 그리고 내세관이 죽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492-503, 2016.
- [8] 임송자, 송선희, “죽음에 대한 태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5, pp.243-255, 2012.
- [9] 박선애, 허준수, “노인의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pp.59-88, 2012.
- [10] 전영기,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11] 이한나, 강은나, 김세원, “노년기 죽음불안 영향요인 연구: 가족기능, 영적안녕감 및 자아통합감의 효과 검증,”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311-332, 2010.
- [12] 윤매옥,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의 죽음불안, 영적 안녕 및 삶의 의미에 미치는 효과,” *지*

- 역사회간호학회지, 제29권, 제4호, pp.513-521, 2009.
- [13] 이경열, “영성 증진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4호, pp.779-800, 2006.
- [14] K. I. Pargament, B. Cole, L. Vandecreek, T. Belavich, C. Brant, and L. Perez, “The vigil: religion and the search for control in the hospital waiting room,”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4, pp.327-341, 1999.
- [15] 이혜숙, “영성적 관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의 이해와 적용,” 교회사회사업, 제11권, pp.7-37, 2009.
- [16] 정덕신, 배성만, 주은선, “영성과 포커성적 태도가 중년 여성의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9권, 제3호, pp.301-314, 2014.
- [17] 홍영준, 이정훈, “은퇴베이비부머의 영적안녕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와 중심요소-,” 한국가족복지학, 제45권, 제9호, pp.95-119, 2014.
- [18] 이서정, 이희경, “영성과 대처방식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해, 제32권, 제1호, pp.135-152, 2011.
- [19] 이지영, 이가옥,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193-215, 2004.
- [20] 문태연, 변상해,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자기 존중감 및 죽음불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7권, 제3호, pp.115-120, 2012.
- [21] 최금주, 제석봉, “노인의 영성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109-125, 2007.
- [22] 현외성, “중고령자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 노인복지연구, 제54권, pp.35-60, 2011.
- [23] 추경진, 청소년, 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감, 우울 및 자살생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석예진,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조절변인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5] C. Bryan, “The Clinical Utility of a Brief Measure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Thwarted Belongingness for the Detection of Suicide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67, No.10, pp.981-992, 2011.
- [26] K. A. Van Orden,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and T. E. Joiner,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Vol.76, No.1, pp.72-83, 2008.
- [27] D. I. Templer,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death anxiety scal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Vol.82, pp.165-171, 1970.
- [28] 고효진, 최지옥, 이홍표,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제2호, pp.315-328, 2006.
- [29] 조민호,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서 본 한국군의 자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0] R. F. Palouzian and C. W. Ellison,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pp.224-236, 1982.
- [31] 우종필,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2012.
- [32] 홍세희, “임상심리학이론의 경험적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 2001년 3월 워크샵 자료집, 2001.
- [33] 홍세희,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 선정기준과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9권, 제1호, pp.161-177, 2000.
- [34] 송지준, *SPSS/AMOS 통계분석*, 서울: 21세기

사, 2013.

- [35] 김경진, 용진선, “암 병원 간호사의 영성, 죽음불안 및 소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지, 제16권, 제4호, pp.264-273, 2013.
- [35] 김세원, 노년기 영성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6] 추경진, 이승연,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25권, 제3호, pp.31-53, 2012.
- [37] 홍미숙, *생명사랑 프로그램이 농촌노인의 인식된 짐스러움, 우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38] 이영미, 조윤옥, “기독교노인의 하나님 이미지와 죽음불안과의 상관관계,” 상담학연구, 제14권, 제4호, pp.2469-2484, 2013.
- [39] 박형규,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임종교육서비스, 사회적지지, 자아통합감에 따른 태도 분석,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송 명 섭(Myoeng-seop Song)

정회원



- 199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 2005년 2월 :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2014년 1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17년 현재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근무 <관심분야> : 노인복지, 의료사회복지

저 자 소 개

김 진 숙(Jin-Sook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07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아동 및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